

작가 지원·컬렉터 발굴 '일석이조'

전남문화재단, 서울옥션 공동경매 11월 자체 운영 경매사이트도 구축 '테이크 아트 홈' 전 3일 응찰 마감

지난 6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전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됐다.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제로베이스 in 전남'에는 8명의 작가 작품 80점이 선보였고 100% 낙찰·판매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옥션과 전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중앙 화단에 알려질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작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남도예술은행사업과 예술작품 렌트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번 서울옥션 경매는 남도예술은행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서울옥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고차분·김미숙·김옥진·김성결·김우성·윤운우·이태희·서지영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출품작은

목포문화예술화관에서 먼저 관람객을 만났고 7일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도 전시됐다. 또 웹 VR전시에는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옥션 경매에서는 서양화가 고차분 작가가 각광을 받았다. 작품 낙찰을 위해 수십차례 응찰이 이어졌고, 이후 K옥션 등에서도 참가 요청을 받았다. 또 당초 파리 단체전 참여 계획이 경매 후 개인전으로 전환된 점도 성과로 코로나 때문에 내년 4월로 미뤄진 전시를 위해 작품 6점을 이미 파리로 보냈다.

재단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체 경매 사이트 구축이다. 지난 2017년부터 남도사이버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최근 2000만원을 들여 갤러리에 경매 사이트를 열었다.

현재 첫 경매로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과 공동으로 '테이크 아트 홈'전을 진행 중이다. 작품 선정과 심의는 재단에서 맡아 고차분·정선영·김옥진·이지수·박성환·성혜림 등 13명의 작가 4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경매는 지난달 17일 시작했으며 오는 3일 오후 2시 마감한다. 경매 시작가는 15만원부터 오프라인 전시는 광양예술창고에서 진행 중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12월 말 열리는 2020서울아트쇼 참가 지원도 한다. 서울 옥션 참여작가 6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2명 등 8명이 참여하게 된다.

예술작품 렌트사업도 대표 사업이다. 재단 소장 작품과 공모 선정작을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작품가의 1~1.5%선이며 대여 기간은 1개월부터 1년이다. 올해는 광주은행, 전남개발공사 등과 임대 계약을 맺었다.

재단은 예술작품 판매·임대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는 K갤러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과 수도권 시장 참여도 노리고 있으며 현재 광주 롯데아울렛 수원점 전시장도 오픈, 작가 5명의 작품 10점을 전시 중이다.

경매는 올해 처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실질적으로 작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적절한 금액으로 '시작가'를 정하고 경매가 시작되는 데 반해 관심을 모았던 서울옥션의 경우 작품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가를 0원으로 책정하면서 작가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줬다. 특히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서울 오프라인 전시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대작을 선보였던 일부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가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차분 | 창밖으로 2020년작 | 72.7×53

추정가 KRW 300,000~2,000,000
시작가 KRW 300,000
현재가 KRW 500,000원

2일 2시간 21분 20초 **응찰하기**

김옥진 작가는 "제 그림을 알릴 수 있고, K옥션 등에서도 제안을 받았지만 시작가가 제로에서 시작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경매의 운영 절차, 수익 분배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작가들이 여러가지 사안을 파악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작가들도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 광양 경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호수 등에 비해 시작가를 낮게 책정한 작가의 작품의 응찰률이 높았다.

재단의 이지현 담당자는 "서울옥션 경매나 자체 경매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출신 작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컬렉터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서울옥션의 경우 시작가를 책정하는 안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을 운영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투명한 영혼의 울림 '캐롤과 성가곡의 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이 연말을 맞아 '캐롤과 성가곡의 밤' 공연을 선보인다. 5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을 한차례도 열지 못한 소년소녀합창단의 첫 무대로 제2대 지휘자로 활동했던 김운영 지휘자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네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무대는 성가곡 '해지는 저편', 'Canon of praise', 'A Peaceful Alleluia'로 장식한다.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성가곡에 안무가 곁들인 무대로 '주께 향한 나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보다 더 잘 사랑하는 이 없네'를 들려준다. 다음으로 'Pie Jesu',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캐롤 메들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

악과 '루돌프 사슴 코', '화이트 크리스마스', '장밋빛 보라',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선보인다.

끝으로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우리를 위해 나섰네', '오 거룩한 밤'을 무대에 올리며 이번 공연을 마무리한다. 특히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우리를 위해 나섰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스케일을 자랑하는 곡으로 소년소녀합창단만의 색깔로 헨델의 음악을 표현한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현악 및 타악 연주자 11명이 참여해 합창음악에 깊고 울림 있는 반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옥진 작 'Get away'

'바위의 시간을 걷다' 15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동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 무등산은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와 임석대 등 주상절리가 장관을 이룬다.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 등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 환경도 좋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역사를, 바위를 매개로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5일까지 '바위의 시간을 걷다' 전시를 우제길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모두 4섹션으로 구성됐다. 1섹션 '바위를

읽다'에서는 바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흔적과 글씨에 담긴 기록을 조명한다. 시간을 초월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섹션 '바위를 말하다'는 경배와 염원의 대상이었던 바위에 주목한다.

3섹션 '바위를 사유하다'에서는 4명의 참여 작가(한희원, 이이남, 김영태, 이세현)가 바위가 사람과 문화에 따라 발산하는 스토리와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마지막 4섹션 '바위를 만나다'에서는 바위를 배경으로 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원시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돌들과 신비로운 주상절리의 실재를 느껴볼 수 있다. 한편 전시는 전통문화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세현 작 'Boundary_주상절리'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85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은행,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 접수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펼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모전인 '제5회 광주화루 공모전'이 개최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의 대표 문화사업인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는 광주가 한국화의 전통과 맥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첫발을 내딛은 '광주화루'는 짧은 기간에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마다 전국의 역량있는 한국화 작가들이 경쟁하고, 교류하는 뜨거운 장이 되고 있다.

제5회 공모전 참가작은 1일부터 광주화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중이며 2021년 4월 중에 최종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포드폴리오-작품심사-심층면접' 3단계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한다. 대상은 3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개인전 또는 해외제지전시 참가를 후원하며, 최우수상은 상금 2000만원, 우수상은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공모전 최종 심사에서 수상자를 포함한 10인의 작가를 선정해 내년 6월 제5회 광주화루 작가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됐던 제4회 광주화루 작가전과 합동 전시로 진행된다. 제4회 대회에서는 이동환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